



유명 연예인 겹치기 출연 부작용 발생 주의해야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모델을 활용하지 않거나 혹은 일반인을 모델로 하는 경우에 비해 광고 길행 비율 이외의 추가적인 모델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위의 광고효과 차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주의 집중을 방해하고, 광고 메시지 혹은 브랜드의 혼란을 야기하는 클리터(Clutter)를 감수해야 한다.

(표 4) 주요 유명 연예인 모델 출연 광고 분석

모델명	출연 광고 현수	브랜드
원빈	27편	SK텔레콤, 맥심TOP, 쿠푸, LG디스플레이, 하이트맥주, K2, 풀집무스, 두리쥬르, 더레이스신, 비욘드 외
이승기	25편	자발, 엑티비티, 피씨드, 프로폴스포츠, 청정원 세미카드, 헤리오스 차량, 대성 외
소녀시대	21편	글로벌인 풍드온라인, 바비로오, 디뮤, 도미노피자, LG생활건강, 아이티, 더레이스신 외
이나영	19편	맥심, 6모션드론, 유니클로, 아이오닉, 쿠원, 자연, 캐논 외
김희애	18편	SK T, 자트온, 오마이기, 유니버스, LG디스플레이 외
신민아	17편	맥심, 해리, 티스타이어 XNOTE, SK텔레콤, 리리코스 외
한민	16편	삼성스마트TV, 옥수수 수영장, K2, 하이트맥주, 힐링스, 바리悬浮스 외
김태희	15편	남양주전기카페맥스, LG디스플, 구원, 해리, 오릭, LGDOLYTV 외
한효주	13편	미스터피디, 삼성의료기전기, 페티리얼리티, 삼성제약, 쏘지, 사�텁데카드 외
이아유	13편	파워는 불가리스, SK텔레콤, SK온오픈, 촐풀리스, 현대자동차, 맥시카나, 멜리사 외

위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유명 연예인의 경우 5개 이상의 브랜드, 10여 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하고 있다. 이러한 겹치기 출연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유명 연예인이 광고한 제품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혼선은 소비자의 브랜드 혼란으로 이어지다 보니, 소비자에게 보다 강력한 인상을 통해 효과를 확



보하기 위해서는 동일 모델이 출연한 타광고보다 더 많은 경고비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광고의 비효율성을 갖게 될 수도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어떤 모델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광고효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광고효과가 높다고 해서 광고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광고는 제품이나 브랜드 혹은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목적으로 광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광고 목적에 맞는 광고 모델의 활용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분석한 내용이 유명인 모델 광고가 효과가 있음을 전제적으로 고정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효과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는 광고에 등장하는 아이디어이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관심과도도 포함된다. 유명인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이해될 수도 있으며, 그리메이티브 아이디어에 따라 모델이 없이도 충분히 원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따라서 유명인 모델을 고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에 어울리는 모델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광고 목적에 부합되며, 장기적으로 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❸❸❸

(표 5) 모델 전략 유형별 주요 대표 광고

광고소개문	광고소개별	이미지
유명 연예인 모델	웃부사 [2012년 6월/ 파리언디시는] 가/처두[2]	
전문가 모델	옥시코리 [성윤금화면구스/시로호박씨/ 해바라이드닝기운]	
연예인 모델	신한은행 [백화점인증점/기자/ 다이나내일운영부문동행]	
일반인 모델	박카스/스마트폰모조기/금상/ 도산(한국인)	
외국인 모델	시몬스 헤드 [베이블롭 헤드슬리핑남자친구/ 홀리데이][인기점]	
모델없는 광고	OLBH DO[동위아웃도/고객만족/ 밀리터리]	